____월 ____일

다음은 기사의 일부분입니다. 소리 내어 기사를 읽고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.

(생략) '차갑게 얼리다'는 뜻의 '냉동(冷凍)'이 젊은 세대의 일상을 관통하는 단어로 부상했다. 취업 시장이 얼어붙고 소비 심리가 위축될수록 냉동식품이라는 이 '찬밥'은 호황을 누리는 중이다. 이들은 삼시세끼도 모자라 '혼술'에 곁들이는 안주까지도 냉동식품으로 연명한다. 이름하여 '냉동 인간' 시대다. (생략)

냉동식품의 인기가 단순히 '한 끼 때우기용'이어서는 아니다. 젊은 세대는 냉동식품을 '나만의 요리'로 변주해 '집밥의 결핍'을 메우면서 인스타그램·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놀이로 소비한다. 인스타그램에 '#냉동'이 들어간 해시태그(검색하기 쉽게 단어 앞에 #을 붙이는 방식)를 검색하면 1만여개 넘는 '냉동 요리'가 떠오른다. (생략)

– 조선일보 2017년 3월 16일

이 기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? 알맞은 제목을 써 보세요.

정답은 100쪽에 있습니다.

오늘 읽은 신문 기사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써 보세요.